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과장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Ⅱ)

- 현대패션을 중심으로 -

성 광 숙* · 이 순 흥**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 전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Aesthetics Consciousness of Voluminous Enlargement in the Western Costume

- In the 20th Century -

Kang-Sook Sung* · Soon-Hong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Myu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4. 6. 9 부고)

ABSTRACT

This Studies on 20th century fashion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times as made up Belle Epoque, New Look, Big Look, and Body-Consciousness. Aside from research in literatures, research into 20th fashion also include the analysis of photo had been taken from various collection.

The enlargement beauty of costume had been place under the aesthetic category and, by interpreting the analogies of presented in aesthetic consciousness, the true nature of the voluminous enlargement in costume had been traced.

To conclude, this study finds there are betwee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differences i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costumes in history and the present-day fashi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voluminous enlargement of the present-day was found to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

(1) History-oriented tradition (2) Metaphorica autonomous (3) Freedom of breaking with restriction (4) Dismantling the irregularity (5) Hedonistic play instinct (6) Psychological compensation (7) Sexual sensuality (8) Ideal of the times (9) Aesthetic ornament (10) Feeling of satisfaction through self-enlargement.

From list above, metaphorical sensuality, aesthetic ornament and the feeling of satisfaction driven by Self-Enlargement are the sam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aesthetics consciousness of the voluminous enlargement of the costume in history in that they are the aesthetic consciousness above time and space. It is metaphorical sensuality which transform woman's body in to distorted images as influenced by both capitalism and materialism in the last 20 years. These are represented by the sadomasochistic and fetish images as the woman's metaphorical voluminous enlargement is apparently becoming more positive, radical and obscene especially in terms of expression.

Key words : voluminous enlargement(양적과장), aesthetics consciousness(미의식)

I. 서론

복식의 양적과장은 신체에 비해 복식의 공간이 크게 확장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즉 양적과장은 시각적 인지에서 크고 지나침이 확연히 구분되어 역동적 공간을 창출하는 팽대(膨大)복식의 형태로, 평면이나 입체의 공간적 확보나 점유에 있어 크고 지나침이 과도한 경우로, 입체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돌출 팽창하게 되고 길이가 신장된 양적의미의 과장을 말한다. 복식의 양적과장이라는 미적형식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미의식이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집단적 공통성을 지닌 복식표현이므로 복식의 양적과장의 이해는 복식과 인간의 관계 구조뿐 아니라 바로 인간 생활의 행위를 탐구하는 의의 있는 일로 판단된다.

연구의 목적은 먼저 복식의 양적과장의 사적고찰을 통해 조형성을 분석하고 그 내적의미를 파악하여 객관적 미를 가능하여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양적과장 현상을 시대정신과 이념, 예술양식, 그리고 주관적 복식 양태 등의 의미로 파악하여 이를 범주화시켜 유형별로 분석해 미의식을 도출하여 복식의 양적과장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식의 양적과장 현상에 대한 맥락을 밝히고자 하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양적과장 현상을 고찰하였다. 서양복식의 시대를 현대사회 이전 시기와 현대사회의 두 시기로 크게 나누어, 현대사회 이전 시기는 고대 이집트부터 근대의 1900년대 까지, 그리고 현대사회는 그 이후인 1920년대 벨에포크 시대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이에 두 시기에 나타나는 복식의 양적과장을 각각 1보와 2보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보에 이어 2보인 본고의 현대패션의 내용적인 범위는 여성복으로 제한하며, 그 이유는 남성복의 경우 혁명기와 왕정복고기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로코코 시대 이후 계속해서 단순화과정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여 양적과장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복의 경우에도 양적과장 양상을 보면, 현대패션이 타운웨어와 포털웨어와의 구별이 확실해지면서 타운웨어는 양적과장이 현저히 감소하여 소형화되고, 드레스를 비롯한 포털웨어

(formal wear)는 특유의 표현적 미적 기능으로 인해 여전히 대형규모의 양적과장의 맥을 잇고 있어 양자간에 차이가 많다. 그리고 60년대부터 세계 패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프레타포르테에 출품되는 의상들이 쇼적인 극적 효과를 위해 실제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유행되는 의상보다 다소 과장되거나 이미지화된 의상 작품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유행패션과 컬렉션의 이미지 의상과도 양적과장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있다. 본고는 1보의 현대사회 이전복식은 궁정의 남녀복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2보의 현대패션은 여성복으로 제한하되, 유행패션을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프레타 포르테(pret a porte)와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컬렉션 의상을 사진 자료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수기능복이나 무대 의상, 축제나 카니발을 위한 건축적인 특수의상, 미술의상, 스포츠의상, 다의적 의미와 변신조작적 기능을 가진 가변적 의상, 기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 예술의상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아이템의 범위는 의상과 그에 따른 헤어 스타일, 모자, 신발 등의 악세서리로 한다. 현대패션의 시기적인 범위는 1보에 이어 계속해서 20세기 벨에포크 시기부터 다룬다.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은 크게 네 시기에 걸쳐 나타나는데, 1910년대의 벨에포크 시기와 1940-50년대의 뉴욕시기, 1970-80 년대의 빅룩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1990년대 이후 바디컨셔스 시기에는 다른 용도와 표현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을 크게 4시기로 나누어 그 현상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함께 실증적 연구를 위해 각 시대별로 양적과장 현상이 현저한 사진자료들을 100여점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1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각 시대별로 고찰된 양적과장 현상을 복식미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미(조형적 특성)와 거기에 내제된 내용미(내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미의식을 범주화시켜 복식의 양적과장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였다. 이와같은 연구수행을 위해 질적(qualitative) 연구 방법의 서술형 방식과 해석형 방식으로 수행하며 고찰된 사실들을 설명하고, 양적과장현상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요소들을 유추 해내기 위해 해석형(interpretive) 방식

을 이용한다. 해석형 방식은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의미의 복식 양적과장 현상을 복식 조형론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이를 지탱하는 내적 의지의 정신적 미를 유추한다.

II.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미적특성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은 1910년대의 벨에포크 시기와 1940-50년대의 뉴룩 시기, 1970-80 년대의 빅룩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1990년대 이후 바디컨서스 시기에는 다른 용도와 표현양상으로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본고는 크게 4시기의 양적과장 현상을 고찰하였다.

고찰된 사실에 따라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형식미-외적조형)를 분석하여 <표 1>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미적 대상의 내면적 형식(내용미-내적의미), 즉 내용은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양식 등을 조명하여 정신적인 내적 의미를 밝혔다. 이상의 양자 형식과 내용에 의존하여 도출해낸 미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 보편성을 지닌 미적 가치들을 범주화시켜 유추하고, 이를 <표 2>를 통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III.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미의식

이상으로 20세기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본질을 규정하는 미의식들을 추려보면 (1) 역사주의적 전통성, (2) 은유적 예술표현성, (3) 탈구속적 자유성, (4) 인체와 의복의 해체적 파격성, (5) 쾌락적 유희성, (6) 심미적 보상성, (7) 시대적 이상, (8) 성적 관능성, (9) 심미적 장식성, (10) 자아확대적 충만성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제1보의 고대부터 근대복식의 양적과장의 미의식은 (1) 은유적 관능성, (2) 의외적파격성, (3) 자아확대적 충만성, (4) 위엄적 숭고, (5) 부와 계급의 상징성, (6) 격식적 의례성, (7) 귀족적 전통성, (8) 심미적 장식성, (9) 시대적 이상, (10) 시대의 인체이상형 등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시대적 이상, 성적 관능성(1보에서는 은유적 관능성), 심미적 장식성, 자아확대적 충만성 등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로서 제1보의 고대부터 근대까지에서 유추된 양적과장의 미의식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시대적 이상과 성적 관능성은 양자간에 특성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본고에서 다시 논의한다. 그러나 심미적 장식성과 자아확대적 충만성은 양적과장의 외형적인 조형상의 형식미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미 즉 내적의미와 미의식은 인간 본성에 의거한 초시공간적 미의식이므로 본질상 1보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다시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1. 역사주의적 전통성

서양복식의 역사에 있어 특히 여성의 스커트를 양적과장한 복식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상징으로 인해 모성성과 성적인 관능성, 수동적 종속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은유적 암시로 인해 실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키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알리슨 루리(Alison Lurie)가 크리놀린(clinoline)과 버슬(bustle)시대의 풍성한 스타일이 아버지와 남편의 부를 과시해 준것¹⁾이라는 지적대로 여성의 극도로 양적과장된 스커트는 비활동성으로 인해 누군가의 시중을 필요로 하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귀족 계급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19세기에 정치적으로 귀족사회가 부활될 경우 반드시 스커트의 양적과장과 콜셋의 착용으로 곧바로 복귀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제1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양적과장의 미의식은 귀족적 전통미로 볼 수 있으나 20세기의 복식양적과장은 귀족을 표현해주는 상징으로의 전통미가 아니라, 역사주의적 관점에서의 전통미를 뜻한다.

20세기 전반 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적 양적과장은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의 뉴룩(new look)시기에 나타난다. 주로 엉덩이를 페티코트로 부풀리는 여성성이 부각되는 스타일이나 버슬, 러프(ruff), 파팅게일(fartingale) 등을 모더니즘적인 단순성에 기인한 모방이나 변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크리스찬 디올(Christan Dior)과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찰스 제임스(Charles James) 등이 표현

<표 1>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형식미(외적 조형)

형식미 시대	양적과장의 형식	형식미 (표현특성, 외적조형)	표현양식	양적과장의 방향
벨에포크 시기 (1910년대)	기모노 스타일의 양적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니즘적 단순성 & 우연성 · 구조적 논리(평면형 재단)의 합리성 & 기능적 논리(의복의 기능성)의 비합리성 추구 · 비구성과 비서구성의 양면 가치의 추구 · 직선적, 무형태, 형태 가변성, 비정형성 	합리적 모더니즘	하방형, 전후좌우형
	페르시아스타일 & 기타 민족적 스타일의 양적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곡과 변형 · 명쾌한 볼륨의 단순한 형태로 과장 · 부조화, 불균형 	기하학적 모더니즘, 표현주의	전후좌우형, 좌우형
뉴룩시기 (1940-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형상의 은유적 양적과장 (꽃, 식물, 나무, 새, 초생달, 날개, 백조 등) · 사물의 도상적 형태화에 의한 양적과장(렘프, 웨딩케익, 빌론 등) · 관념과 이상의 형상화에 의한 양적과장(자유, 비상, 움직임, 착시, 신비, 환희, 풍요 등) · 역사주의적 형태 의한 양적과장(로코코, 버슬, 크리놀린) · 순수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양적과장(프로파일드, 빌론, 오벌, S형, 지그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니즘의 형태적 이미지 고수 · 기하학적 볼륨의 순수구성주의 · 기능성 & 상징성, 전통성 & 현대성, 합리성 & 비합리성의 양면성 ·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기본구조의 파괴 · 기하학적 형태와 유동적 라인의 복합 · 정형적인 틀로부터의 이탈 · 시각적인 유인, 운동감, 긴장, 역동성, 속도감, 왜곡, 비정형성 · 순수 기하학적 형태의 컴포지션룩 · 디자인의 원리 이탈, 다양한 적용 	유기적 모더니즘 (휴머니즘+자연주의), 표현주의,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기하학적 모더니즘 구성주의	다양한 방향
빅룩시기 (1970-1980년대)	빅룩스타일의 양적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 형태의 탈구조주의, 구조적 불확정성, 무형태, 미완성 중성적 이미지 · 계획적 우연과 개방된 공간구성, 평면형 · 탈중심화(서구성 & 비서구성의 측면) · 신체와의 부조화, 수평수직개념의 해체 · 오버사이즈와 레어드에 의한 과장 · 디자인 원리 무시에 의한 추의 미 	포스트 모더니즘, 절충주의	좌우형
	미래주의 스타일의 양적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된 어깨와 볼륨감 있는 오버사이즈,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의상구조의 파괴적 과장 · 중성적 이미지 구축 · 합리성의 개념이 무시된 인공적, 기계적 과장 · 기하학적 구성주의 · 변형 왜곡 · 디자인 원리의 이탈 · 기하학적 형태의 합리성과 기능적 비합리성의 양면 가치 공존 	기하학적 순수구성주의	좌우형
바디컨서스 시기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양적과장(아이템, 디테일 등) · 탈구조적인 비구상적 양적과장 · 장식의 양적과장 · 자연 형상 모방적 양적과장 · 사물의 인용에 의한 양적과장 · 전통 요소 차용에 의한 양적과장 · 민속 요소 차용에 의한 양적과장 · 오버사이즈의 복고적 양적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직 은유, 기호와 단편에 의한 형태 ·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파괴(기본적 형태의 의식적 파괴), 기능과 형태의 비관련성 · 구조적 불일치, 분열, 상징, 불균형, 반형식, 비정형성 · 임의성, 반자연적, 자연과 사물의 패러디, 브리콜라주 · 탈구조적 비정형성, 무형식, 기형화 · 불확정성, 애매모호함, 다의성, 다양하고 임의적인 양적과장 공간 · 쾌락적 유희(기호와 단편에 의거한 확대) · 변형과 왜곡, 병치와 혼합, 인용, 혼성모방, 패러디 · 수직, 수평, 대칭 개념의 해체, 불연속성 · 디자인 원리의 무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절충주의, 탈구조주의, 표현주의, 구성주의	다양한 방향

<표 2> 현대패션의 양적과정의 내용미(내적의미)와 미의식

시기	내용미 (내적의미)	미적범주 개념들	미의식
벨 에포크 시기 (19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와 무관한 순수미 · 동양에 대한 신비로움과 동경 · 개방된 공간 구성 - 열린개념과 우연성의 미 · 공간성(서구성 & 비서구성), 목적성(기능성 & 상징성)의 혼재 · 전통적 기준의 파괴 	우아함, 신비로움, 정적임, 심오함, 직선적, 무형태, 자율성, 자유성 모방(기모노풍), 돌연함, 부조화, 신비로움, 왜곡, 대조감(페르시아풍&기타), 혼합, 파괴, 모방	-역사주의적 전통
뉴룩 시기 (1940-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 &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심 · 인간을 둘러싼 물질세계의 본질 · 내면 세계의 표출을 위한 상징과 은유 · 여성성과 관능성 · 생활속의 예술 · 반전통 & 전통회귀의 공존 · 시각적 유인과 충격에 의한 낯설게하기 · 자연에 대한 동경 	은유(metaphor), 왜곡, 모방, 재현, 운동감, 여성스러움, 비례적인, 경쾌, 돌연함, 의외성, 유동적, 역동성, 속도감, 긴장, 유연성, 낯설음, 혼동	-은유적 예술표현성 -탈구속적 자유성 -인체와 의복의 해체적 파괴성
빅룩 시기 (1970-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파워 획득을 위한 상징 · 침체된 경기와 사회에 대한 심리적 보상 · 트렌드의 이행 · 전통의 거부 · 인체와 무관한 의상의 순수미 · 동양적 신비주의 · 자율성과 자유성, 해방 · 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중성적 이미지)추구 · 여성의 증대된 사회적 역할 · 미와 추의 개념의 해체 	은유(metaphor, allegory), 규모, 거창함, 유연함, 새로움, 모방, 물형식, 충격, 부정확, 무형태추구, 유희적, 낯설음(이탈, 파괴, 부조화, 파괴)	-패락적 유희성 -심리적 보상성 -시대적 이상 -성적 관능성
바디컨셔스 시기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자연의 회귀 ·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혼재(양면성, 다양성) · 패락적 유희성(기호와 단편에 의거한 일회성) · 불연속성, 상대성. · 탈의미 · 구조의 이탈 · 가치기준의 혼란과 파괴적 심리 · 풍자, 자기 기만적 · 낯설음과 새롭게 하기의 새로운 미학 · 토속성과 운시성 추구 · 미적 판단 기준의 부재, 현실의 이탈 · 반이성적, 패션의 불거리화, 패티쉬적 에로티시즘 	은유(metaphor, allegory), 물형식, 연장, 경이, 초감성적, 자유로움, 무의지적, 유희적, 낯설음, 비법칙, 융합, 합일추구(모순, 파괴, 파괴, 왜곡, 부조화, 불확정성, 충격)	-심미적 장식성 -자아 확대적 충만성

한 전통적인 요소들은 여성성과 관능성으로 회귀된 당시의 이상을 표출하기에 적합한 여성적인 요소, 예컨대 부풀린 스커트, 전후좌우가 양적으로 과장된 전통스커트를 모방한 프로파일드(profiled) 라인의 스커트, 뒤쪽으로 땅에 끌리는 하방형 확대의 스커트들,

엉덩이 뒤쪽을 부풀린 버슬 스커트, 와또 플리(watteau pleats)의 네글리제(negligee), 단순한 모양의 러프 등등이 그것들인데 기하학적 모더니즘 정신에 부합되게 장식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간결한 풍성함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일부 구성주의적, 표

현주의적 발상에 입각한 순수이념의 표상을 전통과 접목시킨 '전통의 변형'도 나타나는데, 엉덩이 뒤에 버크램(buckram)을 넣어 버슬이 지그재그(zigzag)형의 날라 오르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디올의 '앙볼(engvol)' 스커트(그림 1)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역사주의 패션은 대체로 1985년경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주의적 경향으로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현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때 복고의 유형은 단지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새롭게 전달하는 것이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도발적이고 페티쉬(fetish)적인 버슬(그림 2),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그런지(grunge)하게 소재를 의도적으로 파괴시킨 크리놀린(clinoline) 드레스,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x)와 레이 가와쿠

보(Lei Kawakubo)의 몸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튀어나온 버슬,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우산살로 반쯤 찢어진 우산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전위적인 러프2)(그림 3),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너털너털하게 울을 푼 진으로 만든 블리오(bliaud, 행잉 슬리브가 달린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용 원피스의 일종), 티에리 뮤글러(Thierry Mugler)의 그로테스크(grotesque)한 독수리 형상을 한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 등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관찰되어진다.

따라서 역사적 아이템을 이용한 양적과장은 현재에 맞도록 절충시킨, 포스트모더니즘적 범주인 역사주의적 절충주의에 의한 양적과장으로 보아야한다.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가치의 공존)

20세기의 양적과장패션은 끊임없이 역사적인 양적과장 요소들을 차용했으며, 디자이너의 창작의지와 시대형식에 따라 절충된, 전통미를 가진 현대적 양적과장패션으로 탈바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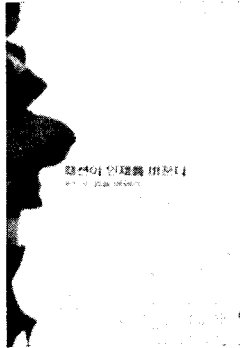
2. 은유적 예술표현성

양적과장 의복의 변형은 크기의 확대, 길이의 신장, 면의 확장 등 인체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대패션은 인체의 선으로 해석된 것만이 의상의 실루엣을 이루었던 것에서부터, 인체의 선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이상으로 자기표현을 확보하는 개념과 시도들이 촉진된다. 20세기 패션은 인체를 의복에 선재하는 구조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은유의 대상이나 해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의상은 인체 구조에 적합하도록 구조되지 않으며, 다른 예술처럼 조형적 표현을 위한 표현매체로 전환한다. 은유는 디자이너의 조형적 표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한데, 자연주의에 입각한 꽃, 식물, 동물과 자연현상이 은유되고, 물질의 형상이 인용되거나 변형된다. 역사주의 요소가 재해석되어 은유되기도 하며, 때로는 디자이너의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상들이 메타포적(metaphor)으로 혹은 알레고리(allegory)적으로 은유된다.

뉴룩시기의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 찰스 제임스 등은 꽃, 내잎클로버(그림 4), 나무,



<그림 1> 이즘패션연구소, 크리스찬 디올, p. 43



<그림 2> 김종복, Create Fashion2, p. 92



<그림 3> Harold koda, Extreme Fashion, p. 25



<그림 4> Valerie Steele, Fifty Years of Fashion New Look to Now, p. 35

새, 깃털, 공작새, 백조, 초생달, 박쥐 등의 자연형상, 램프, 웨딩케익, 벌룬(ballon) 등의 도상적인 형태, 프로파일드, 오벌(oval), 지그잭, S라인 등의 순수기하학적인 형태, 비상, 회오리(그림 5) 등의 관념적인 형상 등을 은유하여 표현한 양적과장 의상들은 디자이너의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하였다.

빅룩의 시기에는 미래주의 스타일로 파코 라반(Paco Rabanne), 티에리 뮈글러,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e) 등이 우주적 이미지를 과장패션(그림 6)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그리고 바디컨셔스 시기에는 알레고리적이고 메타포적으로 자연과 사물을 은유하거나, 혹은 패로디(parody)하여 독특한 표현성의 확보를 위해 양적과장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은 클로드 몬타나(Claude Montana)의 꽃을 형상화한 모자와 자켓이고, <그림 8>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새의 모습을 형상화한 원피스 드레스이다.

은유된 것은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자기의 표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장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은유에 의해 제공되는 비교는 제2차적 상황에서의 특성의 관상학적 특질을 강조 할뿐만 아니라 제2의 상황에서의 향기를 불어넣는다. 구성성분간의 상호모순은, 은유를 현대생활의 모순의 표현에 사용하는 수단의 하나로 쓰지만 추상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또 다른 현대예술의 특색, 즉 현실을 비물질화하는 경향에 유지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현대의 은유는 최초의 구성성분과 비교를 위해 도입된 제2의 구성성분간의 비중차이의 구별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³⁾ 이로서 양적과장이라는 코드를 통해 옷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을 표현 할 수 있는 풍부한 은유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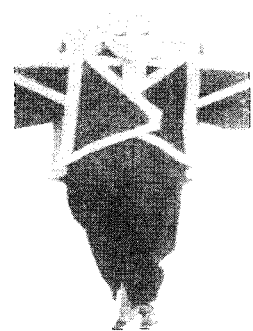
현대패션은 실용적이기보다는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기형화, 형태가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특성을 지니며 양적과장이 된다.

과장적인 형태는 정형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수용자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키므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유인자극이다.⁴⁾ 따라서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은 인체의 선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조형개념의 자기표현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시도이며, 자기이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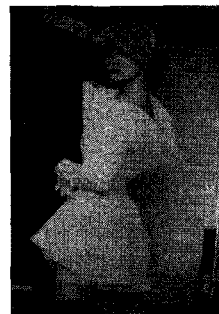
예술적 의지를 표출시키는 새로움의 미학인 동시에 수용자를 유인하는 또 하나의 자극제인 것이다.



<그림 5> 이즘패션연구소, 크리스찬 디올, p. 48



<그림 6> 가재창, 패션디자이너 발상 트레이닝2, p. 26



<그림 7> Collezioni pret à porter N.5 1988 S/S



<그림 8> Collezioni Alta Moda Haute Couture N.6 1988 S/S

3. 탈구속적 자유성

서양복식에서의 의복구성의 개념은 입체적인 인체 위에서 그 인체를 재현하는 것으로, 대체로 인체의 확대와 축소를 통해 변형, 왜곡하면서 시대적인 미적이상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인체는 의복에 구속되었으며, 의복은 자연의 인체와 변형되는 인체 사이를 오가며 구속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동양의 의복구성 원리와 개념은 의복을 인체의 재현이며 인체의 부속적 구속물이라기 보다는 인체와 의복간의 개방적 사고와 탈구속적 구성개념으로 의복 자체와 의복을 이루는 소재의 존재와 물성을 존중하였다. 인체에 종속되지 않는 의복고유의 독자적 순수미를 추구한것이다. 따라서 의복과 입혀지는 인체 사

이에 최소한의 기본구성이 허용되면 족하였기에 인체와 의복은 상호 구속되지 않으며 상호자율적이 되었다. 평면적이며 넉넉한 여유분은 입는이의 인체를 여유있게 감싸며, 불확정적인 구조는 착용에 따라 변화하는 창조적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미완성과 개방된 공간구성은 착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연적인 조형형식을 창조한다.

1910년대 전반 벨에포크 시기의 제페니즈 룩(Japanese look)(그림 9)인 뿔 뾰와레(Paul Poiret)의 스트레이트 박스(straight box)스타일은 특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성원리인 평면형 패션으로, 구조적, 기능적 논리의 시각화에 의한 디자인 방법으로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인 평면성과 자율성의 개념을 인체에 적용하여 의상디자인에 도입한 것이다.⁵⁾ 그리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전반의 제페니즈 스타일의 빅 룩(big look)(그림 10)은 동양의 복식구성 개념이 서양복에 적용되어 대유행된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동양적 신비주의와 이국주의가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인체와 의복 상호간의 구속원리에 수 백년 길들여진 그들로서는 이와같은 인체와 의복사이의 관계 성립이 가히 충격적으로, 탈구속적인 자유로움에 매료되었을 것이다. 구속에서 벗어난 편안한 인체와 의복 사이의 넉넉한 확대공간이 주는 여유는 자연으로서의 인간과 동방적인 신비감과 삶의 여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의복의 구속을 벗어난 해방된 인체의 자유성, 그리고 인체의 재현에서 벗어난 의복의 순수성이 바로 의복의 양적과장이 갖는 또 하나의 미의식이다.

4. 인체와 의복의 해체적 파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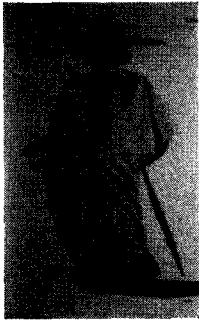
이는 제1보의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미의식에서 유출해낸 의외적 파격성과 일맥상통한다. 니스트롬은(Nystrom)이 유행동기에 대하여 청년기에 있어서의 권태로움, 자기표현, 혹은 색다르게 보이고 싶은 욕구, 관습에 대한 반항, 동료의식, 모방심리 등을 지적했고⁶⁾ 사회심리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 중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찾는 욕구는 양적과장 현상의 파격적이고 왜곡된 형식적 특성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내면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나 현대패션에서 나타나는 파격성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파격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인체를 파악하는 관점이 인간 중심적인 자연적인 신체구조 안에서 여성성과 관능성, 사회적 계급과 신분 등이 수반되는 개념의 인체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구조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대패션에서 인체를 보는 개념은 자기표현을 위한 임의적 재창조의 대상이며, 남성과 여성의 구분조차 무의미한 중성적, 혹은 양성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의 인체는 기본구조조차도 완전히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따라서 그와같은 인체개념에 의해 창조된 패션의 파격미는 이전 역사시대와 비교하면 내적의미나 외적형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인체와 의복의 해체는 현대패션에 있어 빈번이 출현되는 중요한 가치개념이다. 인체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바탕으로, 의상을 순수조형 체계로 보고 순수구성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함으로써 의상의 탈구조적 해체를 도모하는 미적 가치이다. 해체패션의 성격은 의복의 구성의 규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태와 비례, 사이즈 등의 미적원리가 무시되어 모호한 부조화, 불일치 등의 추의 개념으로 미의 해체를 도모한다. 가치기준의 혼란과 파괴적 심리에서 비롯된 '낯설게 하기'의 파라독스와 아이러니의 양적과장패션이 대부분으로, 해체성, 양면성, 불확정성, 다양성, 양성성 등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을 가장 확연하게 반영하고 있다.

의복 해체적 양적과장패션으로 <그림 11>은 바지가 상의의 탑으로까지 양적과장된 가와쿠보의 디자인이며, <그림 12>은 벨트라는 아이템이 양적과장된 클로에(Chole)의 디자인이다. 인체 해체적 양적과장패션은 돌출된 엉덩이 부위가 빠니에(panier)의 위치를 선회함으로써 옆으로 전위⁷⁾ 될 수 있으며(그림 13), 등이나 한쪽 어깨가 인체부위 중에 가장 돌출되어 질 수도 있다(그림 14). 팔과 다리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지와 몸통이 한 덩어리가 되기도 한다(그림 15). 이런식의 임의적이고, 반자연적인 인체의 해체와 재구성은 양적과장된 의상구조에 있어서도 도치와 불가사의의 아이러니, 구조체계의 해

체, 형태파괴, 구조적 불일치, 분열, 상징성, 다양성과 양면성 등이 추구되어진다. 따라서 양적과장된 외형이 기형적, 불균형적, 반형식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9> Alice Mackrell, Paul Poret, p. 35.



<그림 10> Mark Holborn, Issey Miy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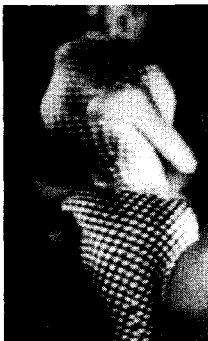
<그림 11> 김종복, Creative Fashion4, p. 23.



<그림 12> Gap1989 S/S



<그림 13> Harold Koda, Extreme Fashion, p. 120.



<그림 14> Charlotte Seeling,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p. 509.



<그림 15> Fraid Chenoune, Jean Paul Gaultier Haute Couture



<그림 16> Book Moda Collezioni 00-01 F/W

5. 쾌락적 유희성

쾌락주의는 쾌락을 인간행위의 궁극적 목적이자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 윤리학설이다. 이는 쾌락은 본질적 선이며 고통은 악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모두 선이라고 주장하는 행복주의의 한 형태이다.⁸⁾ 유희란 진지함이 아닌 것, 휴식, 기분전환, 오락, 심심풀이, 희롱, 장난 등의 삶의 긴장완화로서 심각하지 않은 것,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희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유스러움이며, 또한 일상적인, 혹은 실제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다. 웃음을 수반하는 유희는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쾌락을 제공하며, 우리는 별로 부적절하다는 느낌 없이 오로지 웃음 그 자체를 위해 모든 종류의 난센스들과 유희한다.⁹⁾

패션은 특히 이러한 유희 욕구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감성에 따른 새로운 룩의 시도는 자유로움과 더불어 재미를 느끼게한다. 즉 유희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변형시킴으로써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수 있으며, 의복을 통해서 환상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경험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¹⁰⁾ 패션에서는 일상적인 소재를 다소 변형하여 모방, 과장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위치에 적용하여 뜻밖의 놀라움과 우수꽝스러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기존 패션에 어긋나는 다소 이색적인 혼합과 도치, 낙서기법, 익숙한 이미지 차용, 일상적인 오브제의 사용 등의 방식을 취한

다.11) 예컨대 존 갈리아노의 말꼬리 달린 말안장모 양의 가방이 엉덩이 뒤에서 불쑥 튀어나와 엉덩이를 과장시킨 모습은 얼굴의 분장과 함께 희극적인 익살, 위트, 넌센스의 유머감각을 불러일으킨다(그림 16). 장 폴 고티에의 양적과장된 머리장식에 활용된 한 마리의 새가 들어앉아있는 새장도 전위적인 현대감각과 함께 기분전환이나 장난같은 유머감각이 넘친다(그림 15). 단번에 웃음을 유발하는 유희는 그 특유의 즉흥성으로 인해 과장적 속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양적과장패션에 자주 유추되는 정신적가치이다.¹²⁾

6. 심리적 보상성

의복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문화, 자연 환경, 사회규범, 예술 및 기술적 요인 등이 서로 상호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한 집단에 대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제 요인에 기인된 것이다.¹³⁾ 이렇게 현대패션은 사회경제적 제 요인에 영향을 받아 경제 사회의 침체기에는 인체에 충분히 여유있고 헐렁하고 어깨가 넓고 레이어드(layed)된 긴 오버사이즈 룩(oversize look)이 번성했고, 호황기에는 타이트하고 어깨가 좁으며, 짧은 미니멀 룩(minimal look)이 번성했다. 30년 초반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는 어깨만이 크게 과장된 트라이앵글러(triangular) 스타일이 유행했고¹⁴⁾, 1차대전 중에 유행한 클리노린 스타일은 로맨틱시즘으로 전 통과 좋은 시기를 갈구하며, 전쟁의 불안하고 암울한 위기의 심리를 여성스러운 폭넓은 스커트로 표현하여¹⁵⁾ 보상하려는 것이었다. 2차대전 전후에 인해 밀리터리(military)풍의 어깨를 과장하고 품이 넓은 테일러드 룩(tailored look)이 유행했다(그림 17). 2차대전 후에 나타난 뉴욕의 다양한 양적과장패션은 전쟁의 고통과 궁핍을 잊고 전후에 되찾은 안정감으로 풍요와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73년의 오일쇼크 이후 10여년 이상 지속된 빅 룩(그림 18)은 경제 사회의 침체기에 나타난 유행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악의 실업과 함께 어두운 경제가 전망되는 가운데 2000년경부터 80년대 모드를 재해석한 빅 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그림 19). 빅 룩의 중성적인 이미

지는 강하고 능력있는 여성의 이미지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열의와 남성과의 동등한 지위를 이룩하고자하는 심리이기도하다. 이는 모두 침체된 심리를 의복의 여유를 통해 보상하려는 심리의 표현인데, 양적과장복식의 체적적 연장이 자아확대와 동일시됨으로 인해, 만스로우(Manslow)가 제시한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자존감(존경)의 욕구를 표출하는 기표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제1보에서 유추한 미의식인 자아확대적 충만성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양적과장 복식은 복식에 의한 외적인 신체확장이 착용자의 내면에 자아신체의 확장과 자아내면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져, 자신의 신체능력을 확대시키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미적인 능동성을 갖게 해주게 되는 것이다. 의복확대와 자아확대의 동일시가 심리거체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7. 시대적 이상

사회내에서 집합적으로 선택된 스타일은 시대사조, 즉 시대정신에 따라 바뀌어 나타난다. 패션의 시대적인 유행 디자인(형태, 형, 공간, 선, 색, 소재)에 관한 연구는 그 시대의 다른 특성과 복식과의 흥미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20세기 전반부의 벨 에포크 시기에는 아르데코와 모더니즘, 표현주의, 일본과 페르시아 등 동방의 이국주의적 환상이 추구되어 동방적인 의복구성에 의한 양적과장 현상이 일어났다.

30년대는 어깨에 대한 관심고조로 어깨를 넓게하는 것이 새로운 여성상에 공헌하는 것처럼 되었으며, 극단적 예는 이브닝드레스에서 나타났다. 새로운 여성스러움의 추구로 인해 넓은 어깨에 탄력있고 작고 날씬한 흰에 가는 허리, 날씬한 다리와 발목을 가진 단단하고 커브진 몸매가 이상형으로 추구되고, 넓은 어깨는 이상적인 몸매로 정형화되었으나 이러한 외양은 남성적인 상징이 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고안되었다.¹⁶⁾ 그래서 주름이나 러플, 플라운스, 부풀린 소매 등의 여러 가지 장식적 요소로 어깨를 강조하고 양적으로 과장시켰다.

40년대는 2차 대전을 전후로 하여 어깨를 각지게 한 밀리터리 풍의 테일러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2차 대전 후 뉴욕 시기는 전통적 여성상으로 복귀된 우아한 아름다움과 후기모더니즘인 유기적 모더니즘적인 자연과 인간 중심이 이상화되었다.¹⁷⁾ 자연형상과 사물의 형상, 관념과 이상, 그리고 기하학 형상, 역사적인 요소들이 자유롭게 은유되고 표현된 양적과장 패션의 시기이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전반의 빅룩시기는 레이어드룩, 제페니즈룩, 오버사이즈룩 등의 양적과장 패션이 유행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성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자율적인 여성¹⁸⁾, 의복의 자유성 획득, 전통적 사고로부터의 이탈, 경제대국인 동방의 일본에 대한 동경 등이 추구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달착륙 성공이 도출해낸 테크놀로지를 향한 시대적인 열의와 이상으로 피에르 가르뎅, 티에리 뮤글러, 파코 라반 등이 기하학적 순수구성주의에 입각한 미래주의 패션을 발표하였다. 이는 인공적이며 기계적인 과장을 하였으며, 기하학적 형태로 의상구조를 파괴하여 양적과장을 하여 복식형태의 탈구조적 양상을 보이며, 어깨를 과장하거나 볼륨있는 오버사이즈로 중성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였다(그림 6).

80년대 후반 바디컨셔스 시기는 대체로 허리와 엉덩이는 피트(fit)하고 어깨 부분에 패드를 넣어 각이 지게 하거나 여러 가지 형상으로 부풀려 과장시켰다.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중심적 사고와 상호텍스트적 속성으로 인해 양적 과장된 형태가 비정형, 기형화, 불확정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는 변형, 왜곡, 패로디, 병치, 인용, 혼성모방 등의 기법에 의한 것으로, 양적과장된 형태와 기능이 서로 비관련적이며, 구조적으로 불일치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체의 구조와도 무관하고, 디자인 원리가 무시된 현상을 볼 수 있다.

여하튼 포스트모던한 현상은 하나의 이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이 시기의 시대 이상이 부재하다는 것이 바로 이상이라는 역설을 낳게 한다.

해체와 혼성모방과 절충주의, 다원주의로 특징되는 작금의 포스트모던시대는 새로운 모드는 없으나 매해 패션의 트렌드는 급속도로 빨리 변화한다. 지금은 제시된 하나의 유행을 추종하는 시대가 아닌 다

원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켓이 몸에 얼마나 밀착되는지, 어깨에 패드를 넣어 크게 했는지, 혹은 바지통이 넓은지 좁은지가 대중패션의 유행의 관건이 된다. 뉴모드의 부제 속에서 아직도 양적과장은 꾸뛰르의 창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과장이나 확대는 아닐지라도 대중의 패션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이행하는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욕구이며 그 시기의 작은 이상이기도 하다.¹⁹⁾

이처럼 각각의 시대적 이상들은 패션에 그대로 표출되었으며, 현대패션의 양적 과장의 미의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 성적 관능성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충동이상의 것으로 이는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또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르게 조직화되는 복잡한 사회 구조물이다.

벨 에포크 시기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의해 일본이나 페르시아 등의 동방적인 넉넉한 품의 여유로 인해 몸을 감싸 정숙하게 은폐시킴으로서 오히려 유희적이 되며, 동방적의 신비를 더해 더욱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램프형태로 엉덩이를 부풀린 페르시아풍의 미나레 튜닉(minaret tunic)은 서양복에서도 수없이 나타난 엉덩이의 과장적인 암시에 동양적 신비가 더해져 여성의 성적 매력이 배가되었을 것이다.

2차대전 후 40년대는 여성해방과 전쟁의 여파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전통적인 여성적 관능성이 디올의 뉴욕과 함께 다시 되살아나 회귀되어, 뉴욕이래로 50년대는 날씬하면서 다시 허리를 극단적으로 조이고 가슴이 풍만하고 좁은 엉덩이에 페티코트로 우아하게 부풀려 과장시킨 스커트와 드레스가 입혀졌다.

80년대 이후부터는 바디컨셔스한 스타일의 시대로, 날씬하면서 키가 크고 다리가 긴 건강한 신체에 관능성과 자신감을 갖춘 해방된 신체를 추구하였다. 근래 20여년간 후기자본주의는 신체를 신성시하고 신비화하면서 자본의 이익, 즉 소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장 보드리야르(J. Baudrillard)의 말처럼 여성의 신체미가 부와 사치의 향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여, 신체가 자본화하고 물신화된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르네상스 시기의 남성의 코드피스를 과장한 디자인, 여성의 엉덩이를 과장한 디자인(그림 2) 그리고 장 폴 고티에의 여성의 성적 상징인 가슴을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양적과장시킨 디자인(그림 20)을 볼 수 있다.

신발의 경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장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대를 초월해 공통적으로 패티시즘적인 것인데, 스틸레토힐(stiletto heel)은 위험스러운 가는 굽으로 사도마조키즘(sadomasochism)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93년경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8인치 플랫폼(platform)슈즈와 플랫폼과 스틸레토가 결합된 형태의 신발 역시 이런 이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²⁰⁾

이와같이 20세기 말 양적과장패션에 나타나는 여성의 관능성은 성적 상징부위인 가슴이나 엉덩이가 좀 더 적극적이며, 과격하고, 외설스럽게 확대되어, 창부의 이미지로 사도마조키즘적이고, 패티쉬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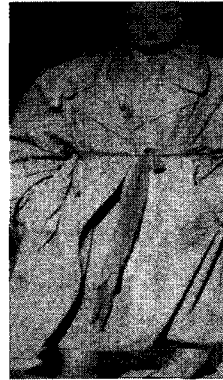
9. 심미적 장식성

10. 자이확대적 충만성

9. 10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복식과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외형적인 조형상의



<그림 17> Gerda Buxbaum <그림 18> 라사라 편저, ed, Icon of Fashion, p. 52. 20세기모드의역사, p. 813.



<그림 19> Gap Press Pretaporter, vol. 24



<그림 20> Fraid Chenoune, Jean Paul Gaultier

형식미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미 즉 내적의미와 미의식은 인간 본성에 의거한 초시공간적 미의식이므로 본질상 1보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다시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제1보의 - 고대부터 근대를 중심으로 - 의 미의식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생성 변천해 온 복식의 양적과장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1보의 고대로부터 근대까지를 중심으로 연구한데 이어 본 2보는 현대패션을 논의하였다. 현대패션은 양적과장 현상이 현저한 벨 에포크 시기, 뉴룩 시기, 빅룩 시기, 바디컨셔스 시기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각 시대별로 고찰된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형식미(조형적 특성)와 거기에 내재된 내용미(내적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패션의 양적과장미를 미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미적 범주화시켜 미의식을 유추해냄으로서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각 시기에 따라 양적과장의 조형적 특성과 내적의미에 차이가 있었으며, 현대패션과 그 이전의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복식의 미의식에도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1보의 고대로부터 근대까지의 양적과장의 본질을 규정하는 미의식을 추려보면 은유적 관능성, 의외적 파격성, 자아 확대적 충만성, 위엄적 숭고, 부와 계급의 상징성, 격식적 의례성, 귀족적 전통성, 심미적 장식성, 시대적 이상, 시대의 인체 이상형 등으로 나타났다.

본 2보의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에 대한 연구 결과 도출된 미의식은 역사주의적 전통성, 예술적인 자율적 표현성, 탈구속적 자유성, 해체적 파격성, 쾌락적 유희성, 심리적 보상성, 시대적 이상, 성적 관능성, 심미적 장식성, 자아확대적 충만성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본질을 규정하는 미의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역사주의적 전통성: 새로운 역사주의적 경향으로 과거의 디자인 요소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현대의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때 복고의 유형은 단지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디자이너의 창작의지와 시대형식에 따라 절충된, 전통미를 가진 현대적 양적과장패션으로 탈바꿈하여 새롭게 전달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적 범주인 역사적 절충주의에 의한 양적과장으로 보아야한다.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가치의 공존)

둘, 은유적 예술표현성: 인체의 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양적과장은 자기 표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자기이상과 예술적 의지를 표출시키는 새로움의 미학인 동시에, 그 수용자를 유인하는 또 하나의 자극제이다.

셋, 탈구속적 자유성: 전통적인 인체와 서양의복 구성 개념은 의복에 의해 변형되고 왜곡되는 종속된 신체와 인체재현으로서의 의복이었다. 그러나 벨 에포크 시기와 빅룩 시기의 의복 확대공간은 신체와 의복에 있어, 구속을 벗어난 해방된 인체의 자유성, 그리고 인체의 재현에서 벗어난 의복 순수의 자유성을 실현하였다.

넷, 인체와 의복의 해체적 파격성: 양적과장이 인체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바탕으로, 의상을 순수조형 체계로 보고 순수 구성주의적 발상으로, 의상의 탈구조적 해체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양적과장미는 해체적인 파격성을 띄게 되어 형태와 비례, 사이

즈 등의 미적원리가 무시되어 모호한 부조화, 불일치 등의 추의 미가 성립된다. 가치기준의 혼란과 파괴적 심리에서 비롯된 '낮설게 하기'의 파라독스와 아이러니의 양적과장패션이 대부분으로, 해체성, 양면성, 불확정성, 다양성, 양성성 등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을 가장 확연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섯, 쾌락적 유희성: 감각적 쾌락주의의 유희성은 진지함이 결여된, 기호와 단편에 의거한 양적과장이다. 유머, 넌센스, 장난 같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양적과장으로 서 무형식성, 솔직성, 낙천성과 비합리성 그리고 이에 따른 과장된 감정적 양극성과 즉흥의 만족감을 준다.

여섯, 심리적 보상성: 양적과장복식의 체적적 연장이 자아확대와 동일시됨으로 인해 침체된 심리를 의복의 여유를 통해 보상한다. 의복의 확장이 자아내면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져 내적인 상실을 대리충족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의복확대와 자아확대의 동일시가 심리기저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곱, 시대적 이상: 고대로 부터 근대에 이어 계속해서 현대패션으로 오면서 각 시대에 따른 이상,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패션의 양적과장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덟, 성적 관능성: 현대패션으로 오면서 가슴, 엉덩이, 발 등 성적 상징부위의 양적과장이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현대 이전의 복식에 비해 노골적, 공격적, 도발적, 상업적인 것으로 페티쉬적이며 사도마조키즘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아홉, 심미적 장식성, 열, 자아확대적 충만성 등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복식과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에서 외형적인 조형상의 형식미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미 즉 내적의미와 미의식은 인간 본성에 의거한 초시공간적 미의식이므로 본질상 동일한 의미로 파악된다. (제1보 심미적 장식성과 자아확대적 충만성 참조)

이상으로 본 연구는 복식 양적과장의 형식미와 내용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의식을 연구하여 양적과장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역사적으로 양적과장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광범위한 시대 범위를 설정하였기에 한정된 지면관계상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복식과 현대패션의 양적과장의 형식미(조형미)와 미

적특성, 그리고 내용미(내적의미)에 대한 연구는 표로서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향후에는 조형적 특성과 내적의미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하며, 아울러 복식의 양적과장과 더불어 축소의 관점이 함께 논의됨으로 인하여, 인체 변형적인 복식의 극단적 표현(extreme fashion)에 대한 이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9) 성광숙 (2002). 복식확대현상의 내적의미에 관한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정보디자인 연구소 논문집, 1권, p. 53
 20) Harold Koda, *op. cit.*, pp. 159-165.

참고문헌

- 1) Alison Lurie, 유태순 역 (1986).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p. 61.
- 2) Harold Koda (2001). *Extrim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Y.: The Metropolitan Musium of Art, p. 25.
- 3) 루돌프에른하임, 김재은 역 (1984). 예술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 399-400.
- 4) 김정은 (2000). 모더니즘후기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88.
- 5) 엄소희 (1998).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1-82.
- 6) 이인자 외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 29.
- 7) Harold Koda. *op. cit.*, p. 120.
- 8) 이영상 편저 (1994). 브리टे니커 세계대백과사전. 21.
- 9)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 p. 72.
- 10) 김유로 (1999).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쾌락주의.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9.
- 11) 김정숙 (1996). 키치패션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6.
- 12) 이경희 (2001). 20세기의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p. 190.
- 13) 이부련, 안병기 (1997). 현대와 패션. 서울: 형설출판사, p. 43.
- 14) Gerda Buxbaum ed. (1999). *Icons of fashion*, N.Y.: Prestel, p. 43.
- 15) *Ibid.*, p. 25.
- 16) Claudia Brush Kidwell, Valerie Steele (1989). *Men and woman*. Washington: Smith Institution Press, pp. 133-134.
- 17) 김정은, 정홍숙 (2000). 제2차 대전후 조형예술과 크리스찬 디올의 복식디자인에 나타남 미적 연구. 복식, 50(2), pp. 72-73.
- 18) Gerda Buxbaum ed. *op. cit.*, p. 122.